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 범주:

이해의 시도

강상진*

【요약】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 『범주』에 나타난 논의를 토대로 관계의 범주적 이해를 시도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두 가지 정의가 무엇이며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가 든 각종 예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관계 범주의 특징으로 제시한 ‘서로를 향해 얘기’하는 것이나 본성상 동시 존재, 인식론적 대칭성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면서 그의 통찰을 한국어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관계에 대한 범주적 이해의 요체가 무엇인지, 그것의 함축이 무엇인지 점검한다.

【주제어】 관계, 관계항, 범주, 아리스토텔레스, 동시적 존재, 인식적 대칭

* 서울대학교 철학과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6S1A5A2A03928082).

[https://doi.org/\[10.34162/hefins.2019..22.009\]](https://doi.org/[10.34162/hefins.2019..22.009])

I. 문제의 제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를 읽는 사람에게 7장에서 논의되는 관계 범주가 실제 범주 이외의 다른 범주들을 통칭하는 ‘우연’ 범주 혹은 ‘속성’ 범주 중 하나로 취급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범주로서의 지위가 의심을 받기도 하는 다른 범주들과 달리 관계 범주는 능히 실제 중심의 세계관에 대비될 정도¹⁾로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중심축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관계 범주를 이해하고자 할 때 드는 여러 어려움 중 하나는 이러한 대비 속에서 이해되고 철학사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관계의 외부성²⁾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공하는 범주 체계 안에서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관계는 개체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질이나 양과는 달리 개체 바깥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범주체계가 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실체 안에 내재inhere³⁾하는 속성’이라는 존재론적

- 1) 동양의 사고방식을 관계 중심의 사유로, 서양의 사고방식을 개체 중심의 사유로 파악하는 입장은 리처드 니스벳, 최인철 역 (2004)에서 잘 드러난다. 소와 닭과 풀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연관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으라는 과제를 주면 미국 어린이들은 소와 닭을 하나로 묶는 경향을 보이지만 중국의 어린이들은 소와 풀을 하나로 묶는 것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한다. 미국 어린이들이 같은 분류 체계에 속하는 소와 닭을 묶는 범주적 사유를 하는 반면 중국 어린이들은 ‘소가 풀을 먹는다’는 관계적 사유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 2) 관계의 외부성에 대한 지적으로 일단 토마스 아퀴나스와 흄을 들 수 있겠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서술의 세가지 방식을 구별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고 주장할 때와 같은 기체의 본질에 관한 서술, 본질은 아니지만 내속하는 양이나 질에 대한 서술, 그리고 관계 범주와 같이 어떤 외적인 것aliquid extrinsecum을 서술하는 방식을 구별한다; *In Physic.*, lib. 3 l. 5 n. 15. 흄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실 혹은 존재의 문제matter of fact or existence에 관한 서술과 관념들의 관계relations of ideas에 대한 서술을 나눈다.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Section IV. Brock, S.L.(1998) pp. 68-73, 102-103에서 재인용.
- 3) 내속inherence 개념에 관한 고전적 연구로는 Owen, G.E.L. (1965) 참고.

구도⁴⁾로 통합될 수 있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라는 작품 안에 등장하는 관계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는 것이 관계를 ‘범주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의 첫걸음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는 많은 해석상의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 양 범주를 다루는 장이나 질 범주를 다루는 장과는 달리 해당 논의 안에서 내적 정합성의 문제도 있고, 관계 범주를 다루는 장이 아닌 곳에서 논의된 것 혹은 그런 논의를 통해 재구성할 수 있는 체계와 일관적인지의 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가령 관계 범주에 관한 두 개의 정의⁵⁾가 나오는데, 두 정의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고 앞의 정의를 뒤의 정의가 교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일종의 발전으로 보아야 할지, 만약 그렇다면 관계 범주에 관한 최종적 입장에 대해서 어떤 함축을 갖는지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문제를 한번에 깨끗하게 풀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 한 편의 논문에서 문제를 다 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단 관계 범주의 구체적인 논의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 어떤 해석적 문제가 제기되는지, 어떤 문제들이 다른 어느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일단 문제의 지형도를 그려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물론 문제의 지형도를 그리는 것의 최종 목적은 관계를 범주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능한 수미일관하게 서술하는 것이다.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식 논의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쓰지 않았지만 필자가 이해하는 한에서 설명에 동원하는 것이 허락될 만한 한국어의 예들도 동원하면서 관계의 범주적 이해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세부적인 논점으로 가면 『범주』 7장을 넘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저작에서의 논의까지 살펴보아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범주』 7장의 텍스트에서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4) 이러한 존재론적 구도에 관한 간단한 설명으로 Matthews, G.B. (1992)를 참고.

5) Bodeus, R. (2002), p. 129; Duncombe, M. (2015), p. 445. 통상적으로 두 개의 정의로 불리지만, 두 번째 정의는 정의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논의로부터 일단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앞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답할 수 있는 방향을 추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다.

II. 논의에 앞서: 관계와 관계항

관계라는 개념이 워낙 넓게 쓰이는 개념이고, 관계 자체를 먼저 이해하고 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관계항이라는 이름으로 관계 자체에 기대어 이해할 수도 있으니 아리스토텔레스가 ‘관계’ 범주에서 말하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령 대소관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은 이런 것이다. 5는 7에 대해 대소관계 하에서는 소라는 관계항에 들어가지만, 3에 대해서는 대소관계 하에서는 대라는 관계항에 들어간다. 5는 그 자체 크다는 속성이나 작다는 속성을 가지지 않고, 비교되는 대상과의 관련하에서만 대소 관계 중 대 혹은 소라는 관계항에 들어갈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는 관계 자체가 먼저 파악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관계항이 파생적으로 이해되는 방식은 아니다. ‘관계’로 번역한 것의 원어는 ‘타 프로스 티 *ta pros ti, ad aliquid*’로 직역을 하자면 ‘어떤 것을 향해 있는 것’이다. 부자관계가 먼저 파악되고 그것의 관계항으로 아버지인 실체와 아들인 실체가 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버지 혹은 아들, 혹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사물이 먼저 주어지고, 그 사물들이 (혹은 그 사물들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서로를 조회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쪽에 가깝다. 말하자면 관계항 우선의 접근법인 셈이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향해 있는 사물(이름)이 나중에 관계 범주라고 통칭하는 범주 이해의 출발점이다.

아마 이런 식의 이해가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관계항에 대해서는 이차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논의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가기도 어려운

논의의 주제들을 만들어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적해 둘 만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맺는 관계⁶⁾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의 타 프로스 티⁷⁾ta pros ti를 편의상 ‘관계’로 번역하지만 일차적으로 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관계항을 지칭하는 말로 쓸 것이다. 이렇게 관계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가령 ‘서로 향해 있는 것들’이 보여주는 논리적 특징이나 문법적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의 말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자가 이해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접근법이다. ‘날개’는 무엇을 향해 있는지, ‘날개’를 이해하기 위해 그것이 향해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차근 차근 보여주는 것이다.

III. 관계의 첫 번째 정의

관계 범주에 관한 논의는 『범주』 7장에서 무엇이 관계인지 기술하면서 시작하는데, 연구자들은 이 최초의 기술을 보통 관계에 관한 첫 번째 정의로 부른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관계pros ti라고 불린다. 즉 그것 자체가 <다른 것의 무엇>이라고 말해지거나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것을 향해 있다pros ti>고 말해지는 것들.”⁷⁾

1) 그것 자체 auta haper estin: 우리는 하나의 사물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가족관계에서 보자면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이면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자식이고, 직장에서는 직책에 따라 과장이며, 실제로 보자면 인간이고, 성별로 보자면 남자 혹은 여자,

6) 수학에서 반사관계reflexive relation는 임의의 집합 X와 여기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a에 대해 aRa를 만족하는 이항관계로 정의된다.

7) Cat. 7, 6a36-37. 이하 『범주』 번역은 필자의 것.

평소에 좋아하고 잘 하는 것을 따라 마라토너 혹은 농구애호인, 가수 등이 특징인이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여러 이름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주』에서 보이는 관심은 그런 이름들을 동시에 가지는 사물 자체보다는, 각 이름들이 다른 이름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혹은 각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이 어떻게 비슷한 (범주적 성질⁸⁾을 갖는) 이름들로 분류되면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과 체계적으로 구별되는지에 가깝다. 하나의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으로 불리는 사물이 떠오르고, 그 사물을 축으로 다른 연관되는 이름들이 떠오르겠지만, 그런 연결을 일단 뒤로 하고 이름들 각각이 고유하게 의미하는 바⁹⁾에 집중하자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름들 중에는 혹은 그 이름들이 가리키는 사물들 중에는 애초부터 ‘다른 것의 무엇’ 혹은 ‘다른 것에 관계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들이 있다. 사람 혹은 ‘사람’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보면 사람 아닌 다른 것과의 관계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인다. 마라토너나 가수도 그 자체로 보자면 ‘다른 무엇’과의 관계를 반드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형 혹은 ‘형’이란 이름은 동생과의 관계를 빼놓고는 그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 혹은 보다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자면 형 그 자체는 동생의 형이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남편 혹은 ‘남편’이라는 말도 ‘아내의 남편’과 같이 말해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언어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인 셈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관계 범주를 기술하면서 ‘그것 자체’라는 말을 통해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바는 다른 범주들과 달리 관계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8) 범주적 특징categorical property에 대해서는 IV장 이하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용어는 Duncombe, M. (2015), p. 438 에서 차용한 것이다. 실체 범주에서는 정도차가 없고 질 범주는 정도차를 허락한다는 등의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다. 실체 범주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반대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 관계 범주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상대방을 향해 애기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 등이 예가 되겠다.

9) Duncombe, M. (2015), p. 448; Sedley, D. (2002), p. 351. 세들리는 ‘그것 자체’라는 표현이 분명한 아카데미적 기원a clear Academic origin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구성하는 것 안에 타자와의 관계를 빼놓고는 우리의 언어세계 속으로 제대로 편입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이었을 것이다.

2) 말해지는 것^{legetai}: 뒤에서 관계 범주에 관한 두 번째 정의를 설명할 때 다시 언급하겠지만, 지금의 정의에서 ‘실제로 그렇다’ 혹은 ‘어떠하다^{einai, esse}’는 존재의 계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legesthai, dici}’는 언어적 계기를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줄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가 다루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한 오래된 질문과도 연관된다. 범주가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을 구성하는 사물들을 나누는 것인지, 혹은 그런 사물들을 가리키는 말들을 나누는 것인지¹⁰⁾에 관한 물음이 『범주』 이해의 출발점이 되는 문제인데, 앞 절에서 설명한 바를 따르면 이렇게 정리해 둘 수 있겠다. 지금 이 단계에서 형 혹은 남편은, ‘형’이라는 말 혹은 ‘남편’이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체계 속으로 들어오는지에 관한 기준을 놓고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3)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일차적인 언어적 표징은 동생의 형, 남편의 아내처럼 한국말로 ‘~의’로 엮이는 것이었다.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속격^{genitive}로 표현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런 언어적 장치로 표현되지는 않고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음을 열어놓는다. 그리고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덧붙이지만 관계항이 서로 동등한 언어적 형식을 통해 교환되는 표현을 갖는 것도 아니다. 형의 동생, 동생의 형, 남편의 아내, 아내의 남편처럼 ‘~의’를 사이에 두고 관계항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지만, 어떤 관계는 지금의 예처럼 대칭적이지 않아서 둘의 관계가 서로 다른 언어적 표현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뚫과 뚫단배의 관계는 뚫단배의 뚫, 뚫 덕분에(때문에) 뚫단배로 표현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의’가 아니더라도 ‘~에 의한’, ‘~으로 인한’, ‘~에 대해’, ‘~보다’¹¹⁾ 혹은 다른 종류의 표현을 통해 둘의

10) 허민준 (2018), pp. 197-240.

관계가 표현되는 것이 더 정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사물의 성립 혹은 그 사물의 의미가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를 빼놓고는 성립하지 않는, 혹은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언어 체계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점이다.

IV. 관계의 첫 번째 범주적 특징: 상호성

아리스토텔레스는 첫 번째 정의를 제시한 이후 이 정의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어 관계 범주들에 속하는 것들 전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중요하게 기억해둘 만한 특징들을 열거한다. 일부에게 해당되지만 전부에 해당되지는 않는 특징들은 스쳐 지나가듯 언급되는데, 비교적 길게 논하고 우리의 주목을 끄는 특징으로 ‘(서로) 상대방을 향해 얘기된다(*pros antistrephonta legetai*)¹¹⁾는 것을 들 수 있다. “모든 관계는 상대방을 향해 얘기된다, 좋은 주인의 종이라고 얘기되며 또한 주인은 종의 주인이라고 얘기되듯이 말이다.”¹²⁾ 아리스토텔레스는 곧바로 절반과 두 배의 관계에서도 더 큰 것보다 더 작은 것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상대방을 향해 얘기된다’ 성질이 적용됨을 지적한다. 이런 예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것을 향해있는 것들’이 일방적인 관계를 가질 수는 없고, 소위 대칭적 관계(*symmetric relation*)¹⁴⁾를 핵심으로

11) 아리스토텔레스, 김진성 역주 (2005), p. 56, 각주 84 참고. 그리스어 혹은 라틴어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속격(*genitive*) 이외의 격들, 혹은 전치사와 결합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12) Ackrill, J. L. (1963), p. 100. 아크릴은 이 관계를 *converse relation*이라고 부르는데, 수학에서 *converse relation*은 관계항의 순서가 뒤바뀐 관계를 말한다.

13) Cat. 7, 6b28-30.

14) 수학에서 대칭적 관계는 어떤 집합의 원소 사이에 aRb 이면 bRa 를 만족하는 관계를 말한다. $a = b$ 관계가 성립하면 $b = a$ 가 성립하므로 동치관계는 대칭적이지만 $a > b$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b > a$ 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대소관계는 대칭적이지 않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드는 예들이 대칭적 관계에 정확히 일치하는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a가 b의 남편이면, b는 a의 아내. (부부관계의 관계항들이 갖는 논리적 성질)

c가 d의 두배이면, d는 c의 반 (두배와 반의 상호관계로부터 도출되는 수학적 성질)

f가 e의 주인이면, e는 f의 종 (주종관계의 관계항들이 갖는 논리적 성질)

이러한 대칭성은 여러 관계들에서 동시에 관찰되는 형식적 특징이고 변향으로 표시된 a, b, c, d ... 가 무슨 이름으로 불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남편과 아내, 형과 동생, 주인과 종과 같은 관계항 혹은 관계항의 이름이 일차적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크라테스를 사람이라고 부를 때와 남편이라고 부를 때 혹은 아들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를 때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의 정보가 전달되고¹⁵⁾, 관계 범주에 속하는 이름으로 부를 때는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지가 그 관계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 정보 중 하나이며, 그 정보가 확보된다면 상대하는 관계항 입장에서 똑같은 관계를 그쪽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크산티페의 남편이라면, 크산티페 입장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아내로 불리고 불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 범주는 이런 의미에서 관계항 중심의 사유이고, 관계항이 맺는 관계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상호 대칭적인 관계를 중핵으로 갖는 것처럼 보인다.

것 같지는 않지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는 관계만 성립하고 다시 건너오는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상호성’ 혹은 ‘대칭성’으로 부르고 싶다.

15) 이 논점과 관계해서는 이태수 (1990) 를 참고하라.

1. 관계항 올바로 짚기: 분석의 필요성

‘(서로) 상대방을 향해 얘기된다’ 이 특징은 관계 범주 이해에서 처음으로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제공한다. 세상에 관계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소박한 질문은 관계 범주의 특징으로 걸어둔 이 성질 때문에 최초로 중요한 장애물을 만난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로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 때문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관계항을 분석해 내는 일의 어려움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드는 예는 새와 날개의 경우이다. 얼핏 보기에는 둘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막 제시한 범주적 특징은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새의 날개’라고 말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지만, 자리를 바꿔서 ‘날개의 새’라고 말하는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종의 주인과 주인의 종, 두 배의 절반과 절반의 두 배에서 가졌던 자연스러운 느낌은 여기서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새와 날개’는 제대로 서로를 향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이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상대방을 향해 얘기되는> 범주적 특징이 성립하려면 관계항을 적절하게 잡아줘야 한다고 말한다. 이 특징이 성립하는 날개의 상대항은 새가 아니라 ‘날개달린 것’이다. 날개는 <날개달린 것>의 날개이며, 둘의 관계에 적절한 언어적 변형을 가하면서 자리를 바꿔 <날개달린 것>은 날개로 인해¹⁶⁾ <날개달린 것>으로 말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식 관계 범주 이해를 소화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 설명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언어적인 것으로 ‘날개달린 것’은 한국어에서 어쩔 수 없이 띄어쓰기가 필요한 두 요소의 결합으로 표현되고 있지만¹⁷⁾ 그리스어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된다.

16)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이 달라지면서 중요한 의미상의 추가가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한국어에서 불가피한 일일뿐,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단순히 격이 바뀌는 정도로 표현된다.

새와 날개가 관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나 ‘날개달린 것’과 날개가 관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언어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 두 번째는 내용적인 것으로 조금 전 왜 새의 날개는 문제가 없으나 날개의 새는 이상하게 느껴졌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에게 새는 새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의 강한 직관이 있으나 날개를 날개로 만드는 것이 반드시 새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생물 중에는 날개달린 곤충도 있을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없었지만 무생물인 비행기도 날개를 가지고 있고, 신화에 나오는 ‘날개달린 신발’이나 ‘날개달린 옷’처럼 ‘날개를 가진 것’은 새 하나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날개는 ‘날개달린 것’이 바로 ‘날개달린 것’으로 성립하기 위한 핵심적 구성요소인 셈이다. 이것이 날개와 <날개달린 것> 사이에서 비로소 관계 범주의 특징인 ‘(서로) 상대방을 향해 얘기’되는 일이 성립한다고 지적하는 이유이다. <날개달린 것>의 <날개>라는 말이 성립하면, 그 반대편에서부터 <날개>로 인해/말미암아 <날개달린 것>이라는 말도 성립한다.¹⁸⁾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의를 이렇게 정리한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는, (관계항이) 적절하게 주어지는 한 상대방을 향해 얘기된다. 그것에 대해 관계가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 우연적인 것이 주어진다면 상대방에 대해 얘기되지 않기 때문이다.¹⁹⁾

17) 띄어쓰기가 없는 중국어의 경우에는 단어 혹은 의미단위가 길어질 뿐이라 한국어보다 그리스어에 가깝게 번역되는 장점이 있다. 17세기 청대의 작품 『명리탐』에 나타난 중국어 번역은 익翼과 유익자有翼者로 번역하고 있다.

18) 나중에 다시 상론하겠지만 실체와 실체의 부분에서 적절한 관계쌍의 파악이 문제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와 날개, 동물과 머리의 예가 그것이다. 관계 범주 해석상의 난제 중 하나인 이차실체의 부분이 관계에 속하는 것이냐는 문제에 관해 상당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19) Cat. 7, 7a22-25.

2. 관계의 범주적 이해에 대해 갖는 함축

아리스토텔레스가 상당한 공을 들여 세운 이 논점에 따르면, 관계를 범주적으로, 보다 정확하게는 범주 체계 안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일단 이런 의미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범주적 관계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 얘기된다’는 특징을 중핵으로 갖는 관계이다. 상호적 혹은 대칭적이지 않고 일방적인 관계도 통상적으로 ‘관계’로 이해되지만, 범주적 이해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의 관계가 아니거나, 서로 상대방을 향해 얘기할 관계항을 제대로 찾지 못한 불완전한 관계이다. 새와 날개가 맺는 관계는 범주적 특징을 만족시키는 관계가 아닌 것이다. 인간과 하늘이 관계를 맺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의 하늘이 의미있게 말해지는 정도로 하늘의 인간이 말해지지 않는다면 범주적인 의미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2) 이러한 한정은 정확히 짚을 땀 서로 상대방을 향해 얘기되는 관계항에 대해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과 무관한 요소들을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주인은 노예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얘기되고, 노예는 주인에 대해서 노예라고 얘기될 뿐, 마침 그 주인이 스파르타인이라거나, 사람이라거나, 건축가라는 사실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무관한 요소들이다. 스파르타인의 노예라는 말을 통해 넓게 이해된 하나의 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노예의 스파르타인이라는 대칭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 건축가와 노예는 범주적으로 이해된 관계항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앞서 3절에서 언급했던 ‘그것 자체’ *auta haper estin*의 의미를 잘 잡아준다. 주인과 노예라는 이름 혹은 그 이름으로 파악되는 사물 혹은 의미는 정확히 서로를 향해 얘기되는 대칭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가질 때만 ‘범주적으로 이해된’ 관계가 된다. 범주적으로 주인은 사람이라는 실체에 기대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만²⁰⁾, 이 부인할 수 없는 존재론적 우선성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사람임은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부차적인 것²¹⁾

20) Cat. 5, 2a34-b6c.

으로, 상호적 관계를 중핵으로 하는 범주적 관계에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V. 관계의 두 번째 범주적 특징: 동시적 존재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계들은 *ta pros ti* 본성상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는 대부분 맞는 말이라고 지적한다. 이 특징은 앞서 설명했던 관계 범주의 첫 번째 특징에서 도출²²⁾되는 것처럼 보인다. 서로를 향해 얘기되는 관계항들은 그 본성상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이다. 두 배와 절반이 동시에 있고, 주인과 종이 동시에 있다는 말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또 한 쪽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지금까지의 설명을 잘 따라왔다면 이해할 만하다. 관계는 그것 자체 *auta haper estin*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말해지고 이해되는 것이니, 관계를 맺는 바로 그 다른 쪽과 함께 자신의 존재를, 혹은 본성을 서로 의존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연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대목은 이러한 본성상 동시 존재가 모든 관계에 통용되는 것 같지 않다는 지적과 그를 뒷받침하는 예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episteme과 알려질 수 있는 것episteton을 본성상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예로 든다. *알*은 <알려질 수 있는 것>²³⁾에 대한 *알*이고 <알려질 수 있는 것>은 *알*에 의해 알려질 것이지만, 그래서 서로를 향해 얘기되는 관계를 충족하지만, 아직 *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알려질 것은 존재할 수 있기에 본성상 동시 존재는 부정된다는 것이다. 알려질 것이 없어지면

21) Sedley, D. (2002), p.335.

22) K. Oehler (1997), p. 299

23)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두 의미요소로 하나의 상태를 표현하지만, 그리스어에서는 단어상 1:1 대응이 관계이다. ‘알의 대상’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대상이라는 말이 강한 번역인데다, 이미 *알*과의 관계가 너무 전면에 드러나고 있어서 피하고 싶다.

얇도 없어지지만, 얇이 없다고 하더라도 알려질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종류의 논의가 감각aisthesis과 감각될 수 있는 것aistheton에도 적용된다고 한다.²⁴⁾

본성상 동시적 존재라는 특징을 주장할 수 없는 예외에 대한 설명이 길지만, 정작 초점이었던 범주적 특징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관계쌍은 본성상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 관계쌍의 한쪽의 소멸이 다른 쪽의 소멸을 함축한다는 점이다. 손주는 자신을 손주로 만들어준 조부모가 사망하는 순간, 더 이상 손주가 아니게 된다. 부부는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부모가 되는 것이고,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형이거나 오빠, 언니이거나 누나가 되는 등 새로운 형제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관계쌍의 본성상 동시존재의 이면, 즉 한 쪽의 소멸이 다른 쪽의 소멸을 함축한다는 것이 우리의 논의를 위해 중요하다. 물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잘 따라온 독자라면 관계쌍의 한쪽이 소멸하는 것이 관계쌍을 속성으로 담지하고 있던 실체의 소멸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잘 이해할 것이다. 배우자의 사별을 통해 더 이상 남편 혹은 아내가 아니지만, 이런 사건이 남편 혹은 아내를 속성으로 가졌던 실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성상 동시 존재를 관계 범주를 특징 짓는 중요한 성격으로 잡아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마도 바로 이 점일 것이다.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거나 존속하던 관계가 나의 실체적 변화 없이 상대방의 변화로 말미암아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우연 속성으로 갖고 있는 실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말이다. 포르피리우스는 실체 범주 이외의 9가지 범주들을

24)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본성상 동시존재’라는 범주적 특징이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이 예들을 들고 있지만, 얇과 감각의 관계쌍을 앞서 논의했던 상호성이 보존되는 방식으로 잡아주면, 가령 얇과 ‘알려진 것’, 감각과 ‘감각된 것’처럼 잡아주면 이 관계쌍에도 본성상 동시 존재라는 범주적 특징이 적용될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물론 이런 해석은 『범주』를 넘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저작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Ackrill, J. L. (1963), pp. 100-101; K. Oehler (1997), p. 300 참고.

우연속성accidents 범주로 부르면서 이것들의 공통점을 ‘실체의 파괴 없이 실제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것’²⁵⁾으로 지목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를 범주적으로 이해한다는 것, 관계쌍들이 본성상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관계범주의 특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관계의 생성과 소멸이 실체의 파괴와 무관한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이해하는 것이다. 관계는 관계항의 한 편이 소멸하면 다른 편도 소멸하고, 존재하면 본성상 동시에 존재하지만, 관계의 생성, 소멸, 본성상 동시존재는 실체의 파괴와 무관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25) A. Busse (1962), pp. 25-26; 포르피리우스 (2009), p. 51.

VI. 관계의 두 번째 정의

1. 범주적 체계

아리스토텔레스로 하여금 관계에 관한 이전의 정의(*proteros horismos*²⁶⁾)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을 보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실체의 부분에 관한 논의에서 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 선택지 즉 “실체 중 어떤 것도 관계에 속하지 않는지 (이것이 개연성이 높은 쪽이다), 아니면 이차실체 중 몇몇은 실체가 관계에 속할 수도 있는지”²⁷⁾라는 난문을 제기한다. 구체적으로 머리카락과 같은 이차실체의 부분들의 범주적 소속에 관한 문제이다. 구체적 개체를 가리키는 일차실체의 경우, 실체의 성립요건, 혹은 실체가 실체이기 위해 다른 것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차실체의 경우는 분명하게 관계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어려움을 주는 이차실체의 부분의 경우는, 실체의 부분들도 실체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 자체가 실체이면서 언제나 ‘~의’ 머리 혹은 ‘~의’ 손이라는 의미계기를 함축하는 이유로 관계 범주에도 속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부분은 언제나 전체의 부분으로 말해지고, 전체 또한 부분의 전체로 말해지니 이차실체의 부분은 바로 부분이라는 이유 때문에 관계 범주에 속하면서, 동시에 실체의 부분도 실체라는 생각도 받아들인다면 실체 범주에도 속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나의 사물이 동시에 두 개의 범주에 속하는 일은 범주적 구별이라는 『범주』편의 기획 전체와 관련하여 엄청난 문제이다. 실체라는 범주, 질이라는 범주, 관계라는 범주, 양이라는 범주 식으로 구별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혹은 그러한 작업의 의미가 확보되는 토대 중 하나는 하나의

26) Cat. 7, 8a33. Duncombe, M. (2015), p. 444.

27) Cat. 7, 8a13-15.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 다른 범주에 속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상호배제 혹은 상호환원 불가능성에 있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을 때 그 사람의 키나 몸무게를 얘기하는 것은 비록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다. 성격이 좋은지, 어떤 일에 열정을 보이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등 질 범주에 속하는 말들이 내가 구하는 정보인데, 전혀 다른 양 범주에 속하는 정보를 받을 때의 황당함이 어떤 방식으로 범주적 구별에 관한 아이디어를 전달한다. 실체 범주에 속하는 이차 실체의 부분이 ‘~의’ 부분으로 불린다는 이유로 관계 범주에도 속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왔던 범주적 체계²⁸⁾는 근본에서 흔들리게 되는 셈이다.

2. 관계의 두 번째 정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가능성 앞에서 혹시 앞서 내렸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게 잘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필요를 느낀다. 실체 범주에 속하는 것이 관계 범주에도 속하는 이 불합리한 일에 봉착하여 이전에 내렸던 규정을 고치는 쪽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 관계의 두 번째 정의로 나아가는 이유이다. “만약 관계가 다음과 같은 것, 즉 그것의 존재^{einai}가 곧 어떤 것에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prosti pos echein}인 것이라면”²⁹⁾ 앞서 제기한 난문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지적하듯 첫 번째 정의에 의거하여 관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 것도 지금의 정의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첫 번째 정의의 주요한 기준이었던 ‘말해진다’^{legesthai}의 경우 정확히 어떤 것과 어떤

28) K. Oehler (1997), p. 296; pp. 302-303; Sedley, D. (2002), pp. 331-332; Duncombe, M. (2015), p. 443. 조금 다른 접근이지만 신현정 (2000), p. 261도 참고할 만하다.

29) Cat. 7, 8a31-32.

관계에 들어가는지를 특정하지 못해도 다른 무엇과 관련되어 말해진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관계 범주에 속했던 반면, 지금의 정의는 관계에 속하는 것의 존재^{einai}가 그 조건을 넘어 정확히 관계를 맺는 대상과 관계의 내용까지 알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³⁰⁾ 다음 절에서 논할 소위 인식적 대칭성 원리 *principle of cognitive symmetry*³¹⁾, 즉 관계쌍의 한 편을 확실히 안다는 것은 상대방을 확실히 앎을 함축한다는 원리를 관계의 정의에 포함시키면, 이전의 정의에 따라 관계 범주로 분류되는 것들이 지금 정의에 따르면 관계 범주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두 배와 반, 주인과 노예는 관계의 두 번째 정의에 의해서도 여전히 관계 범주에 속하지만, 머리카락과 같은 신체의 부분은 무엇의 머리인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머리를 이해하는 일, 혹은 무엇의 손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손을 이해하는 일이 가능하기에 관계 범주가 아니게 된다.

연구자들은 대체로 두 번째 정의를 촉발시킨 문제가 무엇인지 (이차실체의 부분의 범주 귀속 문제)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번째 정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만³²⁾,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인식적 대칭성 원리를 통해 상대방 관계항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을 요구할 때 얼마나 혹은 어떻게 알아야 ‘확실하게’ 아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과연 신체의 부분을 전체에 해당하는 신체에 대한 이해 없이 과연 안다고 할 수 있는지³³⁾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점들이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연 두 번째 정의가 첫 번째 정의를 교정하고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 범주를 이해하는

30) 관계 범주의 첫 번째 정의와 두 번째 정의의 차이를 주석 전통에서는 말해짐에 따른 관계 $\textit{relata secundum dici}$ 와 존재에 따른 관계 $\textit{relata secundum esse}$ 로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 김진성 역 (2005), p. 65, 각주 104 참고.

31) Sedley, D. (2002), p. 327.

32) Ackrill, J.L. (1963), pp. 101-102.

33) Ackrill, J.L. (1963), p. 103; K. Oehler (1997), p. 296; pp. 303-305.

두 가지 관점, 공존할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³⁴⁾, 혹은 관계 범주 안에서 구별 가능하면서 공존도 가능한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³⁵⁾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들은 하나씩 다룰 수는 없고 핵심적 구절에 대한 문헌 비평³⁶⁾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 범주의 이해가 결국 첫 번째 정의와 두 번째 정의의 관계, 이를 통해 지키고자 했던 범주적 체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범주적 체계는 지금 언급했던 이차실체의 부분의 범주 귀속 문제 뿐만 아니라 질 범주와 관계 범주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사물 혹은 이름이 여러 범주에 속하는 것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체와 우연속성 범주가 문제되는 경우에 예민성에 비하면, 관계 범주와 질 범주처럼 우연속성 범주 사이의 동시적 귀속³⁷⁾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해 보이는 것도 논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 논문에서의 목표가 관계를 범주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열개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므로 관계 범주의 두 번째 정의의 체계적 해석 내지 논변에 대한 평가는 후속연구를 통해 수행할 생각이다.

34) Duncombe, M.(2015), pp. 436-461.

35) 세들리는 첫 번째 정의에 의해 연한 관계soft relatives, 두 번째 정의에 의해 강한 관계hard relatives가 포착되며 관계 범주의 문제가 제기되고 발전되어 온 철학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첫 번째 정의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Sedley, D. (2002), pp. 335-339.

36) Sedley, D. (2002), pp. 328-329.

37) 7장 초반부에 관계 범주에 속하는 예로 제시되었던 성향diathesis, 상태hexis, 감각aisthesis, 앎episteme, 자세thesis가 대표적이다. Cat.7, 6b2-3.

VII. 관계의 세 번째 특징: 인식적 대칭성

이 새로운 정의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끌어 내는 관계 범주의 특징은 관계상의 한 편을 확실하게 알 경우, 그것의 다른 한 편도 확실하게 알 것이라는 점이다. 두 배가 무엇에 관계해서 두 배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두 배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관계의 전형적인 예로 드는 두 배와 절반의 경우나, 우리가 자주 예로 든 남편과 아내의 경우는 말하자면 관계 범주의 첫 번째 정의와 두 번째 정의를 모두 통과하는 예가 되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첫 번째 정의에서 난제로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한다. 머리카락과 손 같은 실체의 부분들의 경우 ‘~의’ 손 혹은 ‘~의’ 머리카락과 같이 손이나 머리카락을 부분으로 만드는 전체에 속하는 혹은 전체에 관계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말해지지만), 손을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 반드시 손을 부분으로 만드는 전체를 확실하게 아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미 날개에 관한 논의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의’ 날개인지를 알 필요 없이 날개를 이해할 수 있다면, 부분은 언제나 전체의 부분이라는 일반적인 말의 법칙을 따라 그러므로 부분은 언제나 관계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새의 날개로부터 날개에 대한 이해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곤충의 날개도 있고, 비행기의 날개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는 구체적 날개가 존재론적으로는 그것을 특정한 부분으로 만드는 구체적 전체의 부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인식론적으로는 그것을 부분으로 만드는 전체를 반드시 확실히 알 필요 없이 부분에 대한 앎이 가능하겠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곳에서의 예를 들자면 삼각형의 예각성은 항상 어떤 구체적인 (예각) 삼각형 안에만 존재하지만, 예각성을 이해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삼각형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 필요는 없는 것이다. 손도 인간이 손으로부터 이해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손, 로봇의 손과 같이 굳이 인간에게 묶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손을 부분으로 만든 전체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건이라면 관계에 관한 두 번째 정의를 만족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다.

VIII. 관계를 범주적으로 이해한다는 것

앞 절에서 논의했던 관계 범주의 특징, 즉 ‘(서로) 상대방을 향해 얘기’된다는 것은 관계를 범주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 『범주』를 통해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특징이 적절하지 않게 짝지워진 관계항에서 왜 성립하지 않는지, 제대로 짝을 지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직 이름이 없는 것에 이름을 붙여서 짝을 지워야 한다는 진술³⁸⁾까지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곳에서의 분석도 종종 철학적으로 분석된 사태는 있지만 그 사태를 잡아내는 이름은 없는 경우를 밝혀냈거니와³⁹⁾ 이런 진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주』 안에서 분석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사태의 파악에 따라 적절한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말할 때 거론되는 이름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논의했던 ‘(서로) 상대방을 향해 얘기’됨을 충족시키는 정확한 관계쌍이 관계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이 지적은 관계를 순수하게 범주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만든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38) Cat. 7, 7a11-22. 그런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파악한 사태에 따라 기존 단어로부터 변형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한다. 당대 사람들은 새로운 단어를 들으면 바로 이해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도우미’라는 말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이 뜻을 바로 이해하듯 말이다.

39)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무엇에 대해 관계를 맺는 것인지 적절하게 대답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우연적인 다른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적절하게 관계 맺는 것으로 대답되었던 것만이 남게 되면, 언제나 바로 이것에 대한 것, 바로 이것과 관계 맺는 것이라고 말해질 것이다.⁴⁰⁾

관계 범주 논의 중 가장 정언적으로 들리는 대목인데, 여기서 언급된 관계에 우연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과연 관계를 범주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나은 처지에 이르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든 후 이 관계에 우연적인 것으로 주인이 사람이라는 것, 인식 능력이 있다는 것, 두 발을 가지고 있다는 것 등을 든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가능하려면 물론 사회적으로 노예제를 유지할 동기와 기제가 있어야겠지만, 생물학적으로 주인과 종 모두 인간이라는 것, 두 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라는 실체가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의 관점에서는 주인에게 오히려 그가 인간이라는 점이 우연적⁴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 범주가 여타의 우연속성 범주 중 가장 분명하게 자신이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실체가 관계 범주 자체의 인식에서는 배제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존재론적으로는 실체가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관계이지만 관계 범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관계항으로 만드는 기체가 오히려 우연한 것이 되는 것이다. 어떤 관계를 속성으로 가진 자가 존재적으로 인간이기도 하다는 점은 전혀 우연적인 일이 아니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만 보자면 주인이 마침 고양이도 아니라

40) Cat. 7, 7a31-34.

41) 우연 개념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를 잘 의식하지 않으면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관계 범주의 이해와 관련해서는 관계항을 담지하는 실체가 우연적이고, 관계 범주의 존재론적 의존성과 관련해서는 실체의 파괴 없이 실체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관계는 우연한 속성이다. 결혼을 해서 남편 혹은 아내가 되고 이혼을 해서 더 이상 남편 혹은 아내가 아닐 수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관계항이 우연이 되는 셈이다. 전자를 인식론적 혹은 의미론적 우연, 후자를 존재론적 우연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인간이라는 점이 우연적이라는 것이다. 관계항 주인을 이해한다는 것 혹은 관계항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적어도 관계범주 관점에서는 그 관계항이 인간이라는 실체인지, 아니면 다른 영장류 동물인지는 이해에 중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존재론적으로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관계항을 말할 수 없는 질서에 종속되지만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실체는 관계항으로서의 성격을 우연적으로 가질 뿐이다. 특징인과 부부관계를 맺는 것은 우연적인 일이고, 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체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즉 남편이라는 속성은 아내라는 ‘향해 있는 것’이 있는 한 실체로서의 인간 안에 존재하며, 그 속성을 더 이상 가지지 않는다고 실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나에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지위, 그 이름을 부여하던 속성은 사라지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손자이면서 아들이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아버지는 생존해 계시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가 그러하다. 부자관계를 거치지 않고는 조손관계도 불가능하지만, 손자로서의 내 지위, 이 이름은 생물학적 연결고리의 현존 없이도 가능하지 않은가? 관계항 위주의 접근법은 속성의 내재를 존재론적 토대로 삼는 체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설명 방식으로 보인다.

IX. 남는 문제들

우리는 이 글을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했었다. 실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속성들과 달리 외부성을 중핵으로 하는 관계가 어떻게 범주 체계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내속inherence의 존재론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것이 논문의 목표는 아니었고, 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일, 그것도 가장 초보적인 수준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 편의 관계 장에서 제시되는 논변을 소화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관계 자체가 아니라 관계항을 중심으로 관계 범주에 접근했다는 사실, 관계의 범주적 특징으로 ‘상대방을 향해 얘기된다’는 상호성reciprocity을 잡아내고 이로부터 동시적 존재와 인식적 대칭성에 이르는 논의들을, 생략할 것은 과감히 생략하면서 따라가고, 이런 논의들이 관계에 관한 범주적 접근의 중요한 통로였음을 가능한 한 한국어에 적합한 예 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논문의 직접적인 목표였다. 논문이 성공적이었다면, 아마 어렵פות한 인상, 아리스토텔레스가 관계 범주를 다루는 방식이 어떤 의미에서 관계의 외부성 보다는 실체 안에 내재하는 속성으로 관계를 이해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인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관계 범주를 이런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관계의 범주적 특징들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럴 만했다고 마이다. 물론 관계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식 접근 방식이 유일한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타당한 것도 아니다. 실체와 속성의 범주 체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그런 체계 속에서 관계 범주를 이해한다는 것이 이런 종류의 틀과 사유방식을 만들고 특정한 역사적 이유들 때문에 어떤 사유방식의 전통이 되었을 뿐이다.

최초의 문제 의식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19세기 이후 발견하고 그토록 강력한 도구임을 입증한 관계논리 대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는 생각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 나중에 관계논리로 발전할 만한 씨앗은 품고 있었으되, 관계논리로 발전하지는 않은 상태라서 쉽게 증명할 것을 어렵게 증명하고 있다는 인상 등이 그것이다. 분류의 논리학klassifikatorische Logik만 있고 관계 논리학은 없어서 일항술어와 다항술어, 속성술어와 관계술어를 구별하는 일이 어려웠다는 진단이다⁴²⁾. 관계논리로의 발전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테온은 디온보다 두 배를 소유하고 있고, 필론은 테온보다 두 배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필론은 디온보다 네 배를 소유하고 있다”는 관계적 삼단논법, 혹은 “소프로니코스는 소크라테스의

42) K. Oehler (1997), p. 296; pp. 309-310.

아버지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소프로니코스의 아들이다”와 같은 논증의 타당성을 입증할 일반적 원리를 찾겠다는 이론적 기획이 있었다고 소개한다⁴³⁾. 필자는 약간 다른 이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후자의 논증은 “A가 B의 남편이다. 따라서 B는 A의 아내다”와 같은 형식이고, 이 논증은 부부관계라는 토포스에 근거한 토포스적 논증^{topical reasoning}⁴⁴⁾이다. 그리고 이 토포스는 정확히 우리가 살펴본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 범주에 관한 논의에서 그 힘을 얻는다. 적어도 후자의 논증은 그 타당성을 입증할 일반적인 원칙을 찾을 필요가 없다. 관계를 범주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면 왜 A와 B가 부부관계라는 사실로부터 이런 논증이 성립하는지 이미 잘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미처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과 더불어 남아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관계를 범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소위 토포스적 논증의 토대가 되는 것인지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43) K. Oehler (1997), p. 296; p. 311.

44) 토포스적 논증에 관해서는 강상진 (2006) 참고.

참고문헌

- 강상진 (2000), 「아리스토텔레스 『범주』편 연구-구성과 문제」, 『철학사상』, 10: 125-143.
- _____ (2001), 「아리스토텔레스 『토피카』편의 범주론 연구」, 『철학연구』, 53: 95-115.
- _____ (2006), 「서구수사학의 중세적 전통 - 토포스를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25: 249-281
- _____ (2014), 「서양철학에서의 범주의 문제」, 『사물의 분류와 지식의 탄생 - 동서 사유의 교차와 수렴』, 김상환 박영선 편, pp. 125-143, 서울: 이학사.
- 김수중 (2009), 「개념, 존재, 삶—동양 사상과 ‘개념’의 문제」, 『개념과 소통』, 3: 5-33.
- 신현정 (2000), 『개념과 범주화』, 서울: 아카넷.
- 이태수 (1990), 「범주」, 『철학과 현실』, 6: 327-337.
- 허민준 (2014), 「『이사고게』에서 제시된 보편자에 대한 질문- 플로티누스와 포르피리우스의 형이상학 논쟁의 재구성」, 『서양고전학연구』, 53(2): 165-200.
- _____ (2018), 「왜 『범주론』 다음으로 『명제론』이 오는가?」, 『서양고전학연구』, 57: 197-240.
- 리처드 니스벳 (2004), 『생각의 지도』 최인철 역, 서울: 김영사.
- 아리스토텔레스, 김진성 역 (2005), 『범주론 명제론』, 서울: 이제이북스.
- 포르피리오스, 김진성 역 (2009), 『이사고게』, 서울: 이제이북스..
- Brock, S. L. (1998), *Action and Conduct*, Edinburgh: T&T Clark.
- Bodeus, R. (2002), *ARISTOTE Catégories, Texte établi et traduit*, Paris: Les Belles Lettres.
- Duncombe, M. (2015) “Aristotle’s Two Accounts of Relatives in Categories 7”, *Phronesis* 60(4), pp.436-461.
- Matthews, G.B. (1992), “Container Metaphysics According to Aristotle’s Greek Commentators”, in R. Bosley, M. Tweedale, (eds.), *Aristotle and His Medieval Interpreters*, pp.7-23, Calgary: Univ. of Calgary Press.
- Minio-Paluello, L. (1949 ~1956), *Aristotelis Categoriae et Liber de Interpretatione, rec.*

- 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ehler, K. (1984), *Aristoteles Kategorien, übersetzt und erläutert von Klaus Oehler*, Berlin: Akademie Verlag.
- Owen, G.E.L. (1965), "Inherence", *Phronesis* 10: 97-105.
- Porphyrius [1887] (1962), *Aristotelis Categoriae commentarium*, A. Busse (ed.), CAG, IV/1, Berlin: Reimer.
- Porphyrius [1887] (1962), *Isagoge*, A. Busse, (ed.), CAG, IV/1, Berlin: Reimer.
- Sedley, D. (2002) "Aristotelian Relativities", in J. Brunschwig, M. Canto-Sperber and P. Pellegrin (eds.), *Le style de la pensée: Recueil des textes en hommage à Jacques Brunschwig*, pp. 324-352, Paris: Les Belles Lettres.

Abstract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the categorial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 based on the discussion in Aristotle's work Categories. It is not clear how Aristotle proposed the two definitions, how they relate to each other, how to understand various examples of them, how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eciprocity, simultaneous being, and cognitive symmetry. Through these discussions, we investigate what the categorial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 is and what its implications are.

【Keywords】 Relation, Relatives, Category, Aristotle, Simultaneous Being, Cognitive Symmetry

논문 투고일: 2019. 04. 01

심사 완료일: 2019. 04. 12

게재 확정일: 2019. 04. 12